

# 일체가 나와 둘 아님 깨달아야...

## 대행 스님 법문에서 낙태 해법...고미송 연구원 '문·사·철'에 기고

"일체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고, 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해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살생 조차도 상대를 건지는 일이 될 수 있다. 낙태하는 여성을 남이라고 보지 않을 때 비로소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뱃속의 태아를 나와 둘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낙태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항상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낙태문제를 대행 스님의 법문을 토대로 불교적으로 성찰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미송 동국대 불교교육연구단 연구원은 인문학 계간지 <문학·사학·철학> 제21·22호에 투고한 '낙태문제를 불교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의 주제논문을 통해 낙태에 대한 불교적 담론 속에 숨어있는 가부장적인 윤리의 문제를 드러내 바람직한 불교적 접근법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다.

고미송 연구원은 한 불교학자가 쓴 <불교적 관점에서 본 낙태문제>에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낙태와 관련해 회자되는 불교적 관점 속에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는 부처님의 진리보다 반대로 더 많은 고통을 양산하는 가부장적인 관점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간혹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불교학자가 주장한 내용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에 대해 "글을 쓴 사람이 불교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쓴 학자임을 감안한다면, 불교적 관점 속의 가부장적 관점은 매우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며 식자층이 아닌 불교신자들은 더더욱 진정한 의미의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고 있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부장적인 관점에는 약자에게만 강자를 배려하는 윤리를 집권적으로 가르치는 미성숙한 사회의 특징이 담겨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하는 성윤리, 비구보다 비구니에게 더 많은 계율을 부여했던 승단의 모습 등이다.

고 연구원은 "자각이 있는 수행자라면, 욕망의 대상이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장애임을 직시한

다면, 애써 상대에게 계율을 부과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많은 계율을 부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낙태의 비윤리성을 남성의 경솔하고 무절제한 성의 비윤리성과 연관 짓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만의 바퀴로 수레를 굴러가게 하려는 헛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미송 연구원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낙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대행 스님은 시장에서 닭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이 공부하기를 원하면서도 무수한 살생으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죄업상 그런 일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살생이 아니게끔 하는 도리도 있느니라. 따지고 보면 죽는 쪽도 불쌍하고 죽이는 쪽도 불쌍한데 어느 한 쪽만을 지탄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양쪽을 다 건져야 한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죄라고 자리매김 하면 닭이 법이 돼 평생을 무거운 짐에 눌러 지내야 하거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느냐"고 법문했다.

고 연구원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보더라도 낙태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룰 때 살생으로 인해 생기는 악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낙태 여성들에게 업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죄의식과 절망을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다. 죄라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업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악업이 실체가 아니라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담론을 더 많이 형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대로 일체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고, 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해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살생조차도 상대를 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고 연구원의 생각이다.

고 연구원은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현실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악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회문제를 대하는 불교적 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나 기자 bohnyung@buddhapia.com

# 우주관 담긴 불교는 현대적

## 이시우 박사, 아인슈타인 말 빌어 과학종교 불교의 위상 강조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면 그 종교는 오직 맹목적인 신앙이나 믿음을 강요할 뿐이다. 그러나 종교 속에 우주관이 내포되면 과학적 탐구의 강렬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관측천문학의 대가 이시우 박사(74·前 서울대 천문학과 명예교수·사진)는 7월 15일 불교평론 세미나에서 개최된 열린논단에서 '천문학자가 본 불교 우주관'을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뜻을 같이해 "불교는 과학적 우주관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의 첨단우주과학시대에 과학적 동기를 부여해 만물의 존재가치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합당한 종교"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시우 박사는 부처님의 인생관과 과학적 동기를 부여하는 그의 우주관을 설명했다.

적, 심적 연거진 수수관계로 서로 얽혀있다. 우주 만물의 상호 의존적인 연기의 원리는 존재의 원리이다.

<금강경>의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에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란 고정된 법도 없고 또한 여래가 설한 바의 법도 없다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제외하면,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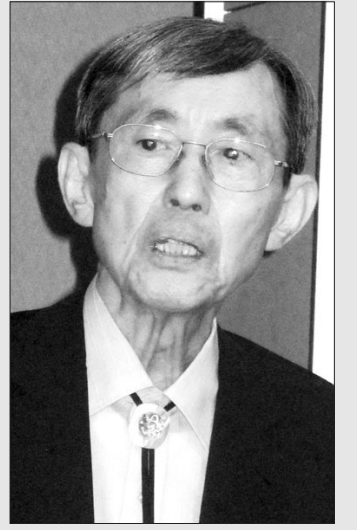
이시우 박사는 "이 뜻은 결국 우주에서는 어떠한 고정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공을 설한 것"이라며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연기의 작용으로 각 구성원의 초기 특성이 소멸되면 개체의 정체성 소멸로 자타의 분별이 없는 자타 불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 #계층적 집단 형성

공간 물질에서 성단이 탄생되고, 성단들이 모여 은하를,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을, 은하단들이 모여 초은하단을, 초은하단들이 모여 초초은하단을 이루며 우주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시우 박사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인드라마"라며 "이처럼 연거진 세계에서는 작은 집단들이 모여 더 큰 규모의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집단의 구속력과 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 #연거진 성주괴공

우주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첫째 전일적 우주는 신화적이며 종교적인 형이상학적 우주로서 비물리적 우주다. 둘째 물리적 우주라는 물리법칙과 수학으로 기술되는 우주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대폭발 우주, 진동우주, 정상 우주, 정적 구면(球面)우주 등이 있다. 특히 대폭발 우주는 허블(1929)에 의한 은하의 후퇴법칙 발견과 가모프(1948)의 이론적인 대폭발 모형으로 설명된다. 셋째 관측 가능한 우주는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인식되는 범위의



우주다. 현재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광속 이상이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으므로 관측 한계를 갖게 된다. 붓다의 경에서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운동을 반복한다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진동 우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붓다의 우주에서는 우주의 수축 팽창 운동 자체보다는 우주가 정적 상태가 아니라 동적 상태임을 강조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집단의 욕망원동

집단에서 각 구성원은 연기관계를 거치면서 각자의 특성에 알맞은 자리에서 알맞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존재 가치를 지니는 안정된 이완계를 이룬다. 이때 그 집단의 구성 요소인 욕망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며 결합될 때 그 집단은 연기적으로 안정된 욕망원동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만물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신이 있을 자리에 존재하게 된다. 성단이나 은하에서 무거운 별들은 집단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가벼운 별들은 주로 외곽에 분포한다. 그리고 성단이 외부 집단의 큰 중력적 섭동으로 충격을 받아 가벼운 별들이 성단을 이탈하면 성단 전체가 수축하면서 구속력을 증가시켜 더 이상 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별들의 세계도 욕망원동이 만족되도록 진화하고 있다.

이어나 기자

## 응용불교 주제 논문 모집

### 東大 경주 불문研 '불교문화연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 연구원(원장 김성철)은 11월 30일 발간 예정인 <불교문화연구> 제11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는 응용불교를 주제로 투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기존에 출간됐던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리지 않은 독창적 논문이어야 한다.

서식하위 이상 또는 출가 승려가 투고한 논문만 받으며 주제는 불교와 인접학문, 사회현상을 접목시킨 응용불교 논문을 권장하나, 응용불교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순수불교학(불교사상, 불교역사) 논문도 투고 가능하다.

투고된 응용불교논문가운데 7편의 논문을 엄선해 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외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원고는 주석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분량을 제한하며 9월 30일까지 이메일(bulmunyeon@dongguk.ac.kr)로 논문을 송부한 후 전화로 통지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원고작성요령 및 심사규정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bulsamu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54)770-2506 이어나 기자

## 진각논문대상 김수연씨 등 수상

### 4개월 후 완성된 논문 중 최우수편 가려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7월 22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교육원장실에서 제12회 진각논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불교일본어학에 △김수연(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현진(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김현진(동국대 불교학과 석사), 이길주(제주불교문화대학원 강사), 이자량(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강사)씨가, 밀교일본어학에

△최성규(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각논문대상을 만들게 된 목적은 불교발전과 밀교학자 및 불교학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불교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진각논문대상은 심사위원장인 진각종 총학연구실장 지정 정사와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개별심사 및 심사위원단 회의를 거쳐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향후 4개월 간 논문 완성기간을 거쳐 11월 중순 최종 논문발표회를 갖고 최우수편을 가리게 된다. 상금은 최우수 1편에 500만원, 그 외 일반 2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어나 기자

## 국립경주博 초·중등교원연수

경주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환)은 7월 26~30일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국립경주박물관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원연수는 현장교원들이 신라문화와 익혀 교육할

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9일에는 임영애 경주대학교 교수의 '신라 절 및 불교문화' 강연 등 신라 불교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4)740-7536 노덕현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5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0년 8월 19일까지

◆개강일시: 2010년 8월 20일 매주(금) 오후 5시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 국내개발 1호!

### 기름값 대비

### 80% 이상 절감

### 심야전기 대비

###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